

몽골임금의 주치의에 오른 '이태준' (1883~1921)

글 _ 박성래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의사가 모두 과학자일 수는 없다. 하지만 1세기 전 우리 나라에서는 의학 교육을 받은 정도만으로도 대단한 과학자였다. 그렇게 의학 교육을 받았던 이태준(李泰俊·1883~1921)은 의사가 드물던 그 시대에 멀리 몽골까지 가서 의술을 펼쳤다. 그는 몽골에서 당시 임금의 주치의를 했고, 특히 당시 몽골 사람들에게 심했던 매독을 비롯한 화류병 치료에 크게 공헌하여 그 나라의 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울란바토르에서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울란바토르 남쪽 자이산 작은 공원에 그의 기념비가 지금도 남아 있다. 1911년 제2회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이태준은 꼭 10년 만인 38살세의 나이에 총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앞으로 역사기들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과학자들도 더러 발견될 것이다. 이태준의 경우만 해도 최근에서야 그의 일생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외국어대 반병률 교수의 논문 '의사(醫師) 이태준의 항일민족운동과 몽골'은 바로 이태준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신해혁명에 감명받아 망명 결심

인천(仁川) 이 씨인 이태준은 1883년 11월 23일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 찬, 어머니는 박평암이다. 그의 자는 원일(元一), 호를 대암(大岩)이라 했다. 그의 호 때문에 몽골에서는 '리다인'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그의 훈장에도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성이 '리'가 되고, 그의 호 '대암'이 '다인'으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소설가 이태준이 더 유명하지만, 소설가 이태준은 1904년생이니 의사 이태준보다는 19년 후배였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여하튼 그는 1907년 10월, 24세 때 세브란스에 입학하여, 1911년 6월 제2회로 졸업했다. 2회 졸업생은 6명이었다. 그런데 이태준이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된 것은 이미 학생 때의 일로 보인다. 그는 안창호의 권유를 받아 비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졸업식 모습

청년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입했는데, 안창호가 이태준을 알게 된 것은 1910년 2월 이후의 일이다. 왜냐하면 안창호는 1909년 10월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죽인 후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다가 1910년 2월 풀려나 세브란스에 입원했고, 거기서 그를 만났기 때문이다. 지금 '도산안창호 자료집'에는 이태준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다. 그 편지를 보면 그는 1911년 10월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크게 감동하여 중국으로 망명을 결심하게 된다.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를 구하는 일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세브란스 선배인 제1회 졸업생 김필순(1878~1919)과 함께 중국 망명을 결심했다. 김필순도 안창호와 편지를 교환한 점은 흥미롭다. 김필순은 안창호와 같은 나이였고, 이태준은 이들보다 5세 아래였다. 또 김필순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역시 중국의 신해혁명에 감명받아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태준은 김필순이 1911년의 설달 그믐 날 기차를 타고 의주로 떠나자 그를 배웅하고 돌아왔지만 병원 안에 이미 그들의 망명 소문이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역시 황급히 서울을 떠났다.

중국 군대에 근무하면서 조선 독립군 창설을 위해 힘쓰던 김필순은 만주일대를 돌아다니다 1919년 여름 콜레라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다. 한편 김필순을 뒤따라 망명한 이태준은 난징(南京)으로 갔다. 난징에서 기독교의원 의사로 일하던 그는 1914년에는 현재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로 이름을 바꾼 고륜(庫倫)으로 떠났다. 이태준은 남경에 있는 동안 안창호와 연락하여 김필순과의 접촉을 부탁하기도 했고, 중국 혁명가들과 사귀었으며, 또 독립운동을 꾀하던 김규식과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김규식의 권유로 이태준은 몽골에 가서 동의의국(同義醫局)을 개원했다. 김규식은 몽골에 독립군 장교양성소를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2년 뒤인 1918년 6월, 김규식은 다시 몽골을 방문했는데, 이때 6세짜리 아들과 그의 사촌 여동생 김은식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를 인연으로 이태준은 뒷날 김은식과 결혼했고, 김규식은 이태준의 사촌처남이 된다.

성병 치료에 공헌해 몽골 최고 훈장 받아

몽골에서 이태준은 두 가지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하나는 돈을 모아 독립운동 단체에 보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로서 몽골인들을 돌보는 일이다. 바로 이 의사로서의 일로 그는 많은 몽골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청 나라의 속국이었던 몽골은 1911년 청조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탄생하자 독립을 선언한다. 이태준이 신해혁명으로 크게 자극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미 몽골 지도자였던 제8대 활불(活佛)을 국가수반(보그드칸)으로 추대해 말하자면 몽골왕국이 된 셈이었다. 하지만 중화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외몽고 지역을 중국영토라 주장하며 침략해 오자 몽골은 독립을 취소하고, 몽골, 중국, 러시아의 3국 조약에 따라 1915년 중국의 자치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 1917년 러시아가 레닌의 혁명세력에 의해 장악되자, 이에 반대하는 소위 백(白)러시아군이 몽골로 피해 들어오기도 한다. 이런 혼란기에 이태준은 몽골국 수반의 주치의로 활약했고, 또 몽골에 번지는 화류병(성병) 치료에 크게 성공해, 몽골인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신통한 의술을 지닌 까레이 의사(고려인 의사)'로 알려지면서 보그드칸의 주치의가 됐다. 또 몽골에 만연한 '매독'을 치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냈고, 1919년에는 몽골 최고 훈장 '에르테닌오치르'를 받았다. 그는 중국군 사령관, 러시아군 장군을 계를 남작의 주치의도 모두 맡았는데, 당시 거기에는 그럴 만한 자격의 의사가 없었던 때문이다.

인술 베풀며 독립운동자금 조달하기도

이 시기는 몽골 현대사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였다. 1919년 중국군이 다시 침략해 오자 몽골 민족주의자들은 두 개의 단체를 만들어 항전했고, 1920년에는 이들이 힘을 합쳐 몽골인민당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 조직의 대표가 보그드칸의 편지를 가지고 러시아로 가서 레닌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혁명에 반대하는 백러시아 군대가 진입하여 중국군을 격퇴하고, 보그드칸이 1924년까지 임금 역할을 한다. 그 후 몽골은 1924년 새 헌법을 공포하고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했으며, 인민당이 인민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 또 수도를 울란바토르로 고친 것도 이때부터였다. 물론 공산정권이 몰려간 다음 한국은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한국대사관을 두었다. 한편 이태준은 이미 지하독립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해 열심히 중국을 드나들며 독립 운동자금을 조달해 주었다. 또 그는 독립운동 단체를 위해 폭탄제조 기술자를 상하이의 독립운동 지도자에게 보내준 일도 있다. 마자르란 이름의 헝가리인 폭탄 기술자는 운전기사로 일하며 이태준을 돕고 있었는데, 이태준이 죽은 다음 혼자서 상하이로 가서 조선인 독립운동 단체를 찾아갔던 것이 당시 기록에 남아 있다. 이태준이 어떻게 죽을

을 맞이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몽골의 군대가 섞여 들락이며 혼란을 거듭하던 몽골을 떠나지 않고 인술을 베풀며 독립운동을 돕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1921년 2월 모스크바에서 제공하는 독립운동자금 4만 달러 가량의 금을 가지고 마자르와 함께 베이징으로 향했다. 독립자금을 전하고, 마자르를 의열단장 김원봉에게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중국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 백군에 붙잡혔다. 러시아 반혁명군은 그를 울란바토르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는 총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가 그를 처형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해방직후 1947년에 나온 독립운동을 설명한 박태원의 '약산과 의열단'에는 그들 러시아군 속에 요시다란 참모가 있었는데, 그가 이태준을 알아보고 '불명선인'을 그냥 둘 수 없다하여, 그의 손에 비통한 최후를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반병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그 러시아군대 속에 요시다란 일본인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 대신 울란바토르에는 이미 일본인 의사 요시다가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책에 기록된 요시다가 바로 이 요시다일지도 모른다. 또 그는 이태준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니, 혼란 중에 그를 제거할 기회를 잡았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더 많은 방증은 그를 총살한 사람은 러시아 반혁명군이라는 것이다. 일제 시기 우리 민족의 대표적 지도자의 하나였던 여운형은 1936년 모스크바로 가던 도중 몽골에서 8일간을 대기하면서 '동포의 무덤'이란 글을 남겼는데, "웅건 남작(러시아 백군)의 패잔군이 고륜(울란바토르)을 노략할 때에 고륜의 주민뿐만 아니라 이태준 병원을 약탈하고 이군을 학살"했다면서, "부근 부락의 주민들까지도 이 유명한 까우리(高麗) 의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동무들은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울란바토르의 남쪽 시기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아래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태준 공원'이다. 그의 무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실당한 다음 그 근처에 묻혔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연세대는 '한국최초 의사 배출 90주년 기념강연회'를 열었는데, 그 때 반병률 교수가 '셰브란스와 독립운동'을 발표하면서 이태준을 소개하여 그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몽골에 연세친선병원을 열고 있던 연세대는 이태준에 대한 자료를 더 조사하면서, 몽골정부에서 2천여 평의 땅을 얻어 여기에 그의 기념공원을 세우게 되었다. 추모비에는 이태준의 일생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는데, 뒤에는 간략하게 영어와 러시아어 설명문이 있다. 그런데 이 뒷면의 '러시아 백군에게 살해당했다'는 부분은 언젠가부터 훼손되어 있다는 여행기록이 인터넷에 떠있기도 하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른다. '무지개 뜨는 나라'라 하여 인기가 좋은 나라로 꼽힌다. 이태준의 의료봉사가 아직도 조금은 그 몫을 하고 있는 듯하다. ㉓